

GILLETTE 남자가 들려주는 WILKINSON 이야기

위키백과가 Wilkinson Sword 브랜드의 기원에 대해 전하는 내용은 오랫동안 공식적이고 공인된 판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그것은 편리하고, 의례화되었으며, 완벽한 영국식 침착함으로 포장된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의심해 보기로 한다.

영국인은 언제나 보수적인 민족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적은 말과 많은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그들은 왕실도, 전통도, 국기도, 애국심도 결코 버린 적이 없다.

그들은 세계를 진정으로 식민지로 만든 유일한 민족이다. 그 증거는 14억 명이 영어 속에서 태어나고, 4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사실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모두 영국인이다: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다.

19세기 초, 여왕 폐하를 모시는 한 왕실 근위병이 — 그저 Wilki라고 불리던 사람이 — 근무하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 채비를 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청결과 외모가 먼저였다.

그는 평소 면도할 때 쓰던 칼에 손을 뻗었지만, 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딸이 이모를 만나러 떠나기 전에 빌려 간 것이었다. 딸은 한 미국 신사와의 낭만적인 만남을 앞두고 몸단장을 하는 데 그 칼이 필요했다. 그런 일은 여자들의 일로 여겨졌고, 남자들은 묻지 않는 것이 도리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Wilki는 아내를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Wilki, 칼을 들고 면도해요.”

Henry Wilkinson은 비범한 재능을 지닌 박식가였고, 특히 공학과 자연과학에 뛰어났다. 그는 영국 왕실과도 사업 관계를 이어 갔다.

그 순간부터 칼의 의식이 태어났다.

훗날 그것은 아들에게도 전통이 되었다.

Wilki에서 이름은 Wilkinson으로 바뀌었고, Wilkinson & Son은 집안의 가업이 되어, 한 가정의 의식을 사업으로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름의 기초를 놓았다.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회사는 면도 제품으로 사업을 넓혔고, 군대에 첫 면도날을 공급했다 —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200만 개를.

영국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가 면도날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말했다:

“두 자루 검을 주시오.”

그사이 생산은 가위, 큰 전지가위, 그리고 다른 많은 절삭 도구로 넓어졌다.

여왕 폐하의 두 자루 검
Ferdinando